

4年生以下 課題文②

길을 가다

길을 가다 문득 혼자 놓고 있는
어린 비둘기를 만나면
다가가서 그 곁에
가만히 서 보고 싶다
몰래 친구가 되고 싶다.

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
단풍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
힘을 잃어가는 마지막 잎새가
빈 가지 끝에 걸려
떨고 있는 그런 가을날.

혼자 놓고 있는 비둘기를 만나면
내 어깨와 비둘기의 그 작은 어깨를
나란히 하고 어디든 걸어 보고 싶다.
그를 따라 멀리 멀리 날아가고 싶다.

道^{みち}を^{ある}歩けば

道^{みち}を^{ある}歩けば、ひょいとひとりであそんでいる
おさないハトに出会うと
近づいて行ってとなりに
そっと立っていてみたい。
こっそり友だちになりたい。

北からふいてくる冷^{つめ}たい風に
もみじ(紅葉)という美しい名前^なで
弱^{よわ}まっていく最後^{さいご}の葉^はっぱが
空^{から}っぽの枝^{えだ}の先^{さき}で
ふるえている秋^{あき}のある日

ひとりであそんでいるハトに出会うと
わたしの肩^{かた}とハトの小さい肩^{かた}を
ならべてどこまでも歩^{ある}いてみたい。
ハトについて行って遠^{とお}く遠^{とお}くへとんで行きたい。